민주당 "박대통령 국정 손떼라"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추미애 대표(오른쪽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표와 당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대통령 퇴진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왼쪽부터)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천정배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집회에서 참가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김산업연구소·수산식품수출단지 추진

사업비 1700억원 필요

국비확보·법률제정 과제

수산물 최대 생산 지자체인 전남도가 국립 김산업연구소, 수산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김, 미역 등 전남 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직접 연구·가공·수출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 국비 확보 등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지난 11일 해양수산융·복합벨트 발굴기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국립 김 산업연구소, 수산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국립 수산 기자재산업진흥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연구원은 국내 김 산업 규모는 3조원 정도로 인삼 산업의 규모보다 크지만, 인삼을 연구하는 국립 연구소는 2곳인데도 김 관련 연구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 2012년 2억3000만 달러, 2014년 2억7000만 달러, 지난해 3억 달러 등으로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은 국내 김의 5분의 4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공과 수출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역팀은 수산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입지로 목포 대양 산업단지를 꼽았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예산 확보 등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과 예산 마련이다.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해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해남·완도·진도)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목포)이 각각 해조류산업육성법,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을 각각 의원 입법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립 김산업 연구소 280억원, 수산기자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123억원, 수산식품 가공단지 400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1000억원 등 1700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도 시급하다. 이들 예산은 2017년 정부 부처 예산에서 누락됐다가 국회에서 포함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제정·공포되도록 중앙부처 및 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남 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유통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박근혜 정부 경제부처 장관 영남 독식

영호남 비율 8대 1 … YS 이후 10명 중 4명 영남 출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경제부처 장관의 영·호남 출신 비율이 8대 1에 달해 김영삼 정부 이래 영남 편중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현재까지 경제부처 장관 5명 중 2명은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영남지역 출신으로 조사됐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오랜 기간 행정을 담당한 정통 관료 출신이 주로 장관에 기용됐다.

분석 대상 경제부처(전신 포함)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다.

13일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부처 장관 121명의 재임 기간과 출신 지역(출생지 기준), 출신 대학 등을 분석한 결과, 영남지역 출신이 45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PK 출신이 29명으로 16명인 TK 출신보다 많았다. 호남지역 출신은 모두 33명(27.3%)이었으며 이중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23명이었다.

충청지역 출신은 모두 19명이었고 서울지역 출신은 13명에 그쳤다. 인천(1명), 경기(3명) 등 수도권 출신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부처 장관의 영·호남 출신 비율은 정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영삼(10 대 6), 노무현(12 대 10), 이명박(6 대 3) 정부 등이 호남 출신보다 영남 출신 인사를 장관에 더 많이 기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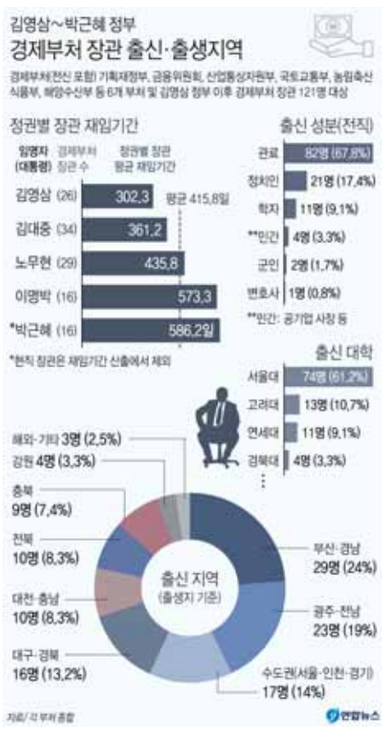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영·호남 출신 비율이 8 대 1에 달해 편중 현상이 가장 컸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 인사를 13명, 영남 출신 인사를 9명 각각 경제부처 장관에 임명해 문민정부 이후 유일하게 영남보다 호남 출신 경제부처 장관이 더 많았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4명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13명과 11명으로 2·3위를 기록했으며, 경북대(4명), 전남대(3명), 성균관대(2명) 등이 복수의 장관을 배출했다.

/박지경기자jkpark@·연합뉴스



김기춘 "홍성담 배제 … 좌파책동 대응" 지시

'세월오월' 계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좌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민중화가 홍성담씨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 '세월오월' 파문을 계기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세월오월'은 2014년 출품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작품이다. 작가가 작품을 자진철거했으나 표현의 자유논란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TV조선은 최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주도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인사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것으로, 정부가 진보적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주 진보예술 단체는 "60여명에 달하는 지역 작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 블랙리스트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인 지원사업에 적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매체는 또 김 전 수석의 비망록(2014년 8월8일자) 메모에는 '홍성담 배제노력, 제재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있다. 김 전 실장은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후 10월2일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주문도 있었다.

홍 작가는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 회의에서 '홍성담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찰을 한 의혹이 있다. 작년 9월 베를린에서 열려고 한 '세월오월' 전시가 운송회사의 운송 거부로 좌절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통로로 국정원이나 그 윗선에서 당시 광주시와 비엔날레재단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일 "(김 전 수석의)메모에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홍성담 작가에 대한 배제노력을 강구하라는 김기춘의 지시가 나오고,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나온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 이제 부두목은 김기춘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의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청구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3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상필(민·북구 3) 광주시의원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을 불법적이고 편법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진흥원의 정원은 31명으로 이 중 28명의 일반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가 현원의 두 배에 가까운 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의 계약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21명에 달했고 이중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6명에 그쳤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